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구조적, 미학적 관점에 관한 고찰[†]

박재홍* 한성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발레 공연 제작이 국가 재정과 공공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구조적 현실을 전제로, 정책 이전에 발레 제작 자체의 개념과 기획 논리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개념적, 탐색적 고찰을 목적으로 발레 제작이 직면한 구조적 난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작 설계 및 미학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공연예술의 딜레마 이론을 근거로 발레 제작이 생산성 향상과 수익 확대에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적 규모 설정, 가치 인식의 증폭을 고려한 제작 설계, 작품의 수명을 전제로 한 재공연 및 유통 구조의 사전 설계, 그리고 공공 지원과 민간 후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작품 내재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성장의 논리가 아닌 지속의 논리로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규모 관객의 동원보다 관객과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작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연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사건(event)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진정한 팬 개념을 통해 소규모 제작 주체의 현실적 지속 전략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시공간 예술로서 발레가 지닌 아우라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기술 복제가 본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 서사적 구조를 포함하더라도 공연의 현존 경험과 감각적 동시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제적 미학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공연을 비일상적 사건으로 작동하도록 경험 조건을 설계하고 관객을 잠재적 참여자로 인식하는 이러한 축제적 접근은 발레 제작의 가치 인식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이 아닌 이론적, 개념적 고찰에 초점을 둔 탐색적 연구로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작 개념의 재구성과 기획 관점의 전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발레 제작,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발레 제작 지속가능성, 가치 인식 설계, 축제적 공연 경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발레는 1973년 국립발레단의 분리 독립 후 1976년에 광주시립발레단과 1984년에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되었고 동시에 대학 중심의 동문 발레단 결성이 활발해지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40여 년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무용수의 수준과 보유 레퍼토리 측면에서 장르의 양적 성장기를 지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 기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와 함께 발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 역시 확대되어 통계청 공연예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2019년 발레공연 매출액은 2015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약 160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간접참여를 넘어 발레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동호인의 수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권선영, 2024). 더 나아가 250여 명에 이르는 한국 발레 무용수들이 해외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으며(문화일보, 2023년 6월 27일자), 국제무

[†] 본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한성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jhpark@hansung.ac.kr

용협회의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상을 2023년 우리나라 발레리나가 역대 한국인 다섯 번째로 수상하는 등 한국 발레의 국제적 위상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레공연 제작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22년 공연통계에 따르면 무용 장르는 전체 공연예술 분야에서 공연건수와 매출 비중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연대비 수익 구조 또한 취약한 편이다(임수진, 홍애령, 2024). 이는 발레가 양적 성장과는 다른 차원의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발레 분야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주로 재정 확보, 공공정책 지원, 또는 특정 유형의 작품제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공연 건수 대비 창작 초연 및 재공연 비율이 낮다는 통계는 발레 창작의 부족 문제로 연결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권선영, 2024; 정옥희, 2022). 이러한 논의는 발레 제작 환경의 현실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으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특정 양식이나 작품 유형의 문제로 환원하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레의 지속가능성을 ‘창작’ 발레와 ‘클래식’ 발레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제작’ 개념은 특정 스타일이나 장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생성되어 유통되고 제공되는 조건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개별 작품의 성격이나 양식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발레 제작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의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발레 제작의 담론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제작 중심 관점에서 발레 공연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발레 제작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관련 담론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 연구를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나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념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마케팅 전략의 효과 검증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 한국 발레 제작의 담론에서 지속가능성은 어떠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가? 둘째, 제작 중심의 관점은 발레 공연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II. 발레 제작의 구조적 난제

1.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와 제작 조건의 한계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이론은 Baumol & Bowen(1966)의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이다. 이 이론은 오케스트라, 연극, 발레와 같은 전통적 공연예술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보몰의 비용병(Baumol's cost disease)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Baumol & Bowen, 1966). 기술 발전이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그 결과 제작비용의 지속적 상승과 상대적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Baumol & Bowen의 이론이 갖는 의의는 공연예술 단체가 겪는 재정적 문제를 개별 단체의 경영 실패나 기획 역량의 부족 문제를 넘어 실연을 전제로 하는 제작 방식 자체가 가진 구조적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는 특정 장르나 작품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예술 제작 전반에 내재된 생산성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Baumol & Bowen은 공연예술을 시장의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공연예술의 지속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적 접근은 공연예술 지속가능성 담론의 초기 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재정 지원, 민간 후원의 장려, 티켓 가격의 보조, 운영 효율화, 관객 개발, 새로운 수익 모델의 모색, 지역사회협력 및 국제협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표 1).

표 1. 공연예술의 지속성 담론에서 제시되어 온 주요 정책적 접근(Baumol & Bowen, 1966)

구 분	내 용
공공재정 지원의 확대	공연예술은 공공재로 간주되므로, 공연예술의 비수익성을 보완하고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연단체 보조금이나 시설 유지개선 비용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민간후원의 장려	세제 혜택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후원 촉진과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티켓가격 보조정책	관객의 공연예술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관객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티켓 가격을 유지하도록 가격보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공연예술 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경영인의 참여, 자원(공연장, 기술, 인력 등) 공유 및 협업 등의 비용절감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관객 개발과 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관객 유치를 위한 관객층 확대 교육 프로그램과 마케팅을 통해 관객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전통적 매표 이외에 영화, 녹음, 방송 등의 추가적인 상업적 수익원 확보를 권장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하여 자원과 관객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협력과 문화교류	공연단체 간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예술적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예술이 시장 논리만으로는 존속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연예술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가 우선되는 공공재로 규정하는 정책적 논리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공연예술 지원 정책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표 1>에서 제시된 정책적 접근은 공연예술 전반의 재정적 지속을 위한 거시적 대응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개별 장르의 제작 구조나 작품이 생성되어 축적되는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공연예술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제작 차원에서 어떠한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제한이 있다.

2. 공공재 논리와 발레 제작 구조의 고착화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공연예술 정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공공재로서의 공연예술이라는 관점은 발레 제작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동시에 제작 구조의 형성과 고착에 지

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Throsby(2010)에 의하면 공공지원은 예술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직의 운영방식, 생산주기, 성과평가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예술의 생산이 시장 논리보다는 행정적 혹은 정책적 틀에 의해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발레 제작도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원금의 구조와 집행 방식에 적응한 형태로 조직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공공재 중심의 지원 구조는 발레 제작을 단기 프로젝트 단위로 분절시키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Menger(2014)는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예술의 생산이 장기적 축적보다는 단기성과 중심의 프로젝트화(projectification)로 귀결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는 작품의 반복 공연, 재해석, 장기 레퍼토리화보다는 단일 시즌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제작 관행을 강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발레 제작이 작품의 수명이나 축적 가능성보다는 당해 연도의 지원 논리와 성과보고 체계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연예술의 생산성 한계와 공공지원 논리가 결합될 경우, 제작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기존 구조의 유지가 합리적 선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Towse(2010)는 보물의 비용병 논의 이후의 공연예술 정책이 비용 상승을 전제로 한 보전지원 방식에 머무를 경우 제작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안정과 현상 유지가 우선 시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발레 제작에서도 유사하게 생산성의 한계를 전제로 한 지원 논리는 제작 규모와 방식의 재구성보다는 기존 인력 구조와 제작 관행을 반복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연예술 정책이 단기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교육적 효과,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층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성(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과 지원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 구조 전반을 고려한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김세훈(2015)은 예술적 가치가 경제적 효과나 계량 가능한 성과로 환원되는 경향으로 예술의 내재적 가치가 정책 설계와 평가에서 주변화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선영(2017)은 AHP 분석을 통해 공연예술 유통 구조에서 가치 인식 요소가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변수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2021)는 관객 개발 전략이 예술 가치의 확산과 정책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빈과 이정아(2018)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체계의 분석에서 축제의 예술적 완성도나 질적 기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이정희(2019) 역시 계량적 지표가 국공립 기관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공연예술의 특수성과 질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예술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의 연구에서도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활용 간의 괴리가 구조적 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발레에 있어서도 권선영(2024)은 단기사업 중심의 발레 창작 지원이 장기 축적을 저해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주제가산점이 제작 구조를 정책 논리에 종속시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공연예술 지원 정책이 예술의 질적 가치보다는 행정적 효율성과 성과 지표 중심으로 설계되어온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국내 공연예술 연구에서 예술의 가치는 작품 내부에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공공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객 인식과 가치 설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재정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인식과 정책 설계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서도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공공재 논리는 발레 제작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인 동시에 제작의 단기적, 보조금 의존적 구조로 고착되는데 기여한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 논의가 단순히 재정 확보나 규모의 확장을 넘어, 제작 개념과 인식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III. 가치 인식 증폭을 통한 발레 제작의 설계 관점

발레 제작에서 제작 개념과 인식 구조의 재설계는 관객에게 인식되는 가치의 밀도를 높이는 관점을 고려하지는 취지이다. 이는 제작의 목표를 ‘더 수준 높은’ 혹은 ‘더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관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기억되는가를 사전에 설계하는 문제로 제작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발레 공연은 무대 위에서 소멸되지만, 관객의 인식 속에서는 서사, 이미지,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험이다. 따라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은 무대 위에서 실현되는 작품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공연이 이야기깃거리 가치를 지닌 경험으로 남도록 설계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 기술이 아닌 가치 인식을 구조화하는 개념적 도구로 마케팅의 개념을 차용하여 가치 인식의 증폭을 고려한 발레 제작의 설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발레 제작의 포지셔닝과 인식 선점의 논리

Ries & Trout(1994)는 마케팅의 본질을 시장 점유가 아닌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의 위치 확보로 규정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선도자(leadership)의 법칙, 영역(category)의 법칙, 집중(one word ownership)의 법칙은 제품 경쟁을 넘어 문화 콘텐츠의 인식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틀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은 개별 작품의 완성도 경쟁보다는 관객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반복적으로 점유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선도자의 법칙은 ‘최고’보다 ‘최초’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발레 제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완성도 높은 발레라는 일반적 수식어보다 ‘최초의 ○○ 발레’ 혹은 ‘○○를 대표하는 발레’와 같은 인식 구조가 관객의 기억 속에 더 강하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존 영역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면 새로운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영역의 법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주요 발레단들은 각기 다른 제작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축적해왔다. 유니버설발레단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스타일의 정통 클래식 전막 발레를 중심으로 현대발레와 한국 콘텐츠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강하는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 국립발레단은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대형 클래식 전막 발레를 중심으로 서유럽의 현대발레와 발레극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해왔다. 최근 창단한 서울시발레단과 창립 20주년을 맞은 와이즈발레단은 컨템포러리 발레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통해 기존 대형 발레단과 차별화된 인식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발레 제작에서 마케팅이 단순한 홍보나 매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방향의 반복을 통해 관객 인식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와 키워드를 점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Kotler & Scheff(1997)는 공연예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예술 단체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의 일관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발레 제작에서의 마케팅은 판매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작 정체성을 압축해 관객의 인식에 고정하는 인식 설계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2. 관객 연대와 상징적 위상의 전이

발레 제작의 인식 설계가 특정 영역과 키워드를 점유하는 문제라면, 이후의 문제는 그 인식이 관객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확산되는가의 문제이다. Godin은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의 핵심을 대중 전체를 설득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집단과의 관계형성, 다시 말해 부족공동체(tribe)의 구축에 두었다(Godin, 2003; 2008). 그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가 기능적 효용을 넘어 타인과의 연대와 사회적 위치의 상승이라는 위상의 전이에 대한 심리적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Godin이 제시한 연대와 위상의 전이 개념은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연대는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위상의 전이는 특정 행위나 소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한다고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Godin, 2008). 이러한 관점은 발레 공연이 지니는 장르적 특성에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발레는 신체를 매개로 한 실연 예술로서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출연자, 컨디션, 공연 환경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지며, 이러한 비반복성은 공연 관람을 그 순간에만 가능한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Pine & Gilmore(1999)가 제시한 경험경제 이론에 따르면 희소하고 비가역적인 경험일수록 기억과 담론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는데, 발레 공연은 이러한 조건을 구조적으로 내포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발레 공연 관람은 암전된 객석, 동일한 시선의 방향, 박수와 침묵의 공유를 통해 개인적 인상을 집단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며 관객 간의 암묵적 연대를 형성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은 공연 이후에도 관객의 기억 속에서 공유되고 다시 서술하게 만드는 이야기거리의 기반이 된다. 결국 발레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객에게 파는 것이며, 어떻게 모두가 원하는 공연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이 공연이 타인에게 전달할 만한 이야기거리인가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Godin, 2003). 이야기거리로서의 공연 경험은 관객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안목을 드러내는 상징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발레 공연 관람이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위상의 전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면적 화려함과 대중적 요소를 넘어 작품 내면의 문화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에도 관심을 가지는 관객에게 발레 작품의 진정성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레 제작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예술적 행위가 아니라 관객의 기억과 관계망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험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발레단이 차별적 예술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연대공동체를 구성하고 담론을 촉발하는 차별적 요소와 관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경험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모든 발레 작품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관객 경험을 촉발하는 미학적 조건과 제작 방향이 결합될 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미학적 선택의 문제로 확장된다.

3. 관계 기반 제작의 지속 가능성 모델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대규모 관객 동원과 공공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성장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모델은 단기적 성과 지표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의존의 고착과 제작 방식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Kelly가 제시한 “1,000명의 진정한 팬” 개념은 발레 제작을 위한 직접적인 수익 공식이라기보다, 규모 확장이 아닌 관계의 밀도에 기반한 지속성 모델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Kelly, 2008). 그에 따르면 진정한 팬이란 창작자의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작품의 소비를 넘어 관계를 유지하는 헌신적 지지자를 의미하며, 창작자는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관객층 없이도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발레 제작에 단순 대입할 수는 없으나 특히 중소 규모의 발레단이나 독립 제작자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려는 평균화 전략이나 대중화 전략보다는 특정 가치와 미적 태도를 공유하는 관객과의 밀도 깊은 관계를 통해 제작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공공재 지원 논리 하에서 요구받는 대중성의 증명과는 다른 차원의 지속성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Baym(2018)은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가와 관객 간의 직접적 연결이 강화되면서, 창작자의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대규모 시장이나 중개 기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의 축적과 유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하였

다. 소셜 미디어, 이메일 뉴스레터, 멤버십 프로그램,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은 관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술의 생산과 유통 구조의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발레 제작 역시 이러한 관계 기반 구조를 통해 공공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보다 자립적인 제작 조건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기반 접근은 Pine & Gilmore(1999)가 제시한 경험경제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발레 공연이 일회적 소비 대상을 넘어 관객의 정체성과 서사에 편입되는 경험으로 작동할 때 그 가치가 증폭된다. 다시 말해, 관객이 발레 작품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의미의 원천이 될 때 관계의 지속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소규모 제작은 비용의 축소가 아니라 관계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많은 관객을 동원했는가의 문제로부터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했는가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발레 제작을 국가 재정의 투입과 외형적 성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성장 중심의 제작 논리를 넘어 제한된 조건 하에서도 관계와 의미의 축적을 통해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 제작 개념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IV.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미학적 방향

1. 아우라(Aura), 기술 복제, 그리고 발레 제작의 역설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미학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 복제와 예술 경험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탄생으로 상징되는 근대 시청각 매체의 발전은 예술의 생산, 유통 및 수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데, 1895년 루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 상영을 기점으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이행, 그리고 공중파와 디지털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기술 복제는 예술 경험을 대량화하고 공간적 제한을 해체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예술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시간적이자 공간적 존재성을 아우라(Aura) 개념으로 설명하며, 기술 복제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작품의 고유한 권위와 경험의 밀도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Benjamin, 2008). 복제는 예술을 대중에게 개방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를 능동적 해석자가 아닌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발레는 이러한 기술 복제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 복제가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공연예술 장르이다. 움직임에 운율과 소리, 의미와 상징, 무대요소를 더해 비언어적 시청각 구조체로 무대라는 특정 시공간에서만 완성되는 신체 실연 예술로서 관객은 극장에서만 경험 가능한 비대체적 현존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레는 벤야민의 아우라가 가장 강하게 유지되는 예술 장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우라의 현존성이 발레 제작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닿는다. 극장이라는 물리적 플랫폼에 대한 절대적 의존, 재공연 시마다 반복해 발생하는 고정비용, 그리고 디지털 복제를 통한 유통 확장의 한계는 발레 제작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발레 분야는 스트리밍이나 영상 유통을 적극적 수익 모델로 삼기보다, 홍보나 기록 아카이브 수준에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Phelan(1993)은 공연의 가치가 기록, 복제, 문서로 전환되는 순간 상실된다고 강조하고, 표시 되지 않은(unmarked) 상태의 현존이 공연예술의 저항적 힘이라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무대 실연의 일회성 때문에 디지털 유통으로 수익화가 어렵고 극장 의존적 고정비용 구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스트리밍 활용의 한계를 논의한 Reason & Reynolds(2014)는 현대무용과 스크린 댄스가 현존성과 아우라 유지로 대량 유통의 경제적 확장이 어려운 특성으로 디지털 스트리밍을 주로 기록이나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로열오페라하우스의 클래식 공연 스트리밍 시도가 관객 경험의 희석과 수익 한계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발레 제작은 아우라를 유지함으로써 예술적 정체성을 보존하지만, 동시에 그 아우라로 인해 지속가능한 확장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축제(Fest) 개념이 작동할 조건의 설계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미학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제작환경의 개선이나 기술적 보완이 아닌 공연이 작동하는 경험 구조 자체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축제(Fest)’는 축제 형식의 운영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의 현존 경험을 강화하는 미학적 조건(비일상성, 놀이성, 공동체성, 신체성)을 지칭한다. 기술 복제나 영상 유통은 발레 제작의 외연을 확장할 수는 있으나 발레가 지닌 본질적 가치인 신체의 현존성과 동시적 감응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제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우라의 현존성을 하나의 사건(event)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Benjamin, 2008). 이는 공연을 고정된 결과물로 인식하는 관점을 벗어나 공연이 발생하는 조건과 경험의 밀도를 설계하는 기획 논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레 제작의 대안적 미학 틀로서 축제 개념의 차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병남(2003)은 축제를 일상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집단적 사건으로 정의하며, 축제의 핵심 미학적 속성으로 비일상성(Extra-ordinariness), 놀이성(Play), 공동체성(Communitas), 신체성(Corporeality)을 제시하였다. 이때 축제는 단순한 행사나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정서, 그리고 공동체적 감응이 집단적으로 폭발하는 미적 장(場)으로 정의된다. 이와 유사하게 Turner(1982)는 축제와 제의에서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를 코뮤니타스(Communitas)로 개념화하며, 일상의 위계와 질서가 유예되는 경험이 개인에게 강렬한 정서적 결속과 기억을 생성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축제의 개념을 발레 제작에 적용한다면, 공연은 완결된 의미 전달로만 환원되는 재현에 머무르기보다 비일상적 사건의 체험으로 작동하도록 경험 조건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때 서사적 구조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객의 체감, 관계, 공동체 기억 속에서 사건화를 강화하는 구성 요소로 병행될 수 있고, 관객은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감각적, 정서적 동시성을 통해 사건에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무대는 기능적 공간을 넘어 일시적으로 새로운 규칙과 감각 질서가 작동하는 장소가 되며, 무용수의 몸은 안무를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축제의 질서를 대행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Schechner, 2013).

특히 축제 개념적 발레 경험에서 관객은 공연을 이해하는 과정과 함께, 더 나아가 무용수의 신체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리듬, 공간의 긴장과 분위기에 신체 감각이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카이로스(Kairos)적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성은 공연의 서사나 메시지를 축적하는 크로노스적 기억과 달리, 순간의 감정과 감각을 중심으로 한 체험 기억을 형성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반복적 참여를 통해 그 경험을 다시 호출하고자 하는 제의적 충동을 생성한다(Fischer-Lichte, 2008). 이 과정에서 공연 경험은 관객 개인을 넘어 이야기와 감정의 형태로 재생산되며, 공동체적 기억으로 확장된다. 이는 서사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사가 있어도 관객 기억에서 서사 이해만이 아니라 감각 정서적 각인과 공동체적 전파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를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표 2. 축제 개념을 적용한 발레 공연의 성격

구 분	기존 공연의 성격	축제로서의 공연의 성격
비일상성	공연 시작 이후 러닝타임 동안의 비일상	공연장 입장부터 일상과 의식적으로 단절된 사건
놀이성	의미 이해가 중심이 되기 쉬운 정숙한 관람	감각 정서의 선행과 의미해석이 공존하는 관람
공동체성	개인 구매, 관객은 외부자, 일회성 관람	‘함께 가는 이유’ 제공, 관객은 공동체, 반복되는 의례
신체성	시각 중심, 무대 내부에 집중	다감각 자극, 극장 공간 전체의 감각화, 체감된 분위기
카이로스적 시간	공연 내용 기억, 리뷰 중심, 작품 홍보	순간의 감정 기억, 이야기 중심, 경험 전파

이와 같은 축제적 관점의 도입은 성공한 발레 공연의 기준을 이동시킨다. 성공의 척도는 '완성도 높은 작품'에 더해, 관객의 기억 속에 사건으로 각인되는 축제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표 2). 공연은 상품이 아니라 사건(event)이 되며, 관객 개발의 핵심도 재구매율이 아니라 참여 경험을 반복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축제 구성원의 수를 확장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즉, 발레 제작은 개별 작품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발레라는 축제가 작동할 조건(시간, 공간, 신체, 감각, 공동체)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기획 행위로 확장되며, 이는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미학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전환점이 된다.

3. 비언어적 신체 예술의 조건과 발레 제작의 미학적 전환

축제의 미학이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사례로는 대중가요 콘서트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스타 중심의 비일상적 사건을 통해 관객의 반복적 참여와 강한 공동체적 동일시를 유도한다. 최근 정부가 K-컬처 진흥의 일환으로 대규모 다목적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축제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경제, 2025년 11월 25일자).

그러나 발레는 대사나 가사 중심의 언어 기반 공연예술인 뮤지컬이나 메가 이벤트의 전달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발레가 비언어적 신체 예술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나, 이러한 비언어성이 서사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발레의 서사는 언어가 아니라 움직임, 음악,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구축되며, 축제적 요소 역시 이러한 발레의 서사적 구성과 상호배타적이지 아닌 병행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발레에서 신체는 텍스트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는 매체인데, 이는 단순히 상징적 비언어라는 차원을 넘어 관객과 공연 사이의 감각적이고 현전적인 관계가 핵심이다(Reason & Reynolds, 2010). Foster(2011)도 “안무된 감정이입(Choreographing Empathy)”에서 움직임과 관객의 신체적 감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무용 감상이란 단순한 시각 정보의 해석이 아니라 관객의 체감된 운동감(kinesthetic sensation)과 연관된 경험으로의 감각적 연결이 공연 경험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또한 발레는 신체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해석하는데 집중을 요구하므로 관람 거리, 공간 규모, 신체적 현전성(presence)에 민감함에 따라 대형화 될수록 반대로 감각적 밀도가 희석될 여지가 있다(Foster, 1985).

이와 같은 특성은 다른 장르의 무용에 비해 규모가 큰 발레 제작의 경우에도 경제적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미학적 전환의 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발레의 비언어적 특성과 신체성을 대규모 확장 대신 집중도 높은 축제적 경험을 설계하는데 적합한 조건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즉, 공간의 크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각적인 현존적 경험의 밀도와 강화하는 전략은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학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경험의 밀도, 신체적 공감, 그리고 감각적 공동체감의 구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축제적 발레 제작의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발레 관객은 공연을 단순히 보는 주체가 아니라 공연 공간 안에서 신체적 감각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체험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때 발레 제작은 성장의 논리가 아니라 현존 경험을 반복 가능하게 조직하는 지속의 논리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논리는 비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미학적 강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발레 제작에서 요구되는 미학적 역전의 핵심 과제는 작품의 형식이나 표현을 새롭게 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발레라는 비언어적 예술이 신체적 현존과 감각적 공감을 통해 경험되도록 만드는 조건 자체를 미학적으로 설계하는데 있다. 이는 안무의 서사의 혁신이 아니라, 공연이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구성, 공간의 밀도, 관객의 반복적 참여 가능성, 그리고 신체적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발레 제작은 이 조건들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미학적 과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지속의 논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발레 제작이 외형적 성장과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작 구조와 재정 기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정책 이전에 발레계 내부의 제작 인식과 운영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발레 제작의 구조적 난제와 발레 제작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연 가치 인식 설계 및 미학적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발레 제작의 구조적 난제는 공연예술 전반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즉 재정 조달 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국고보조, 개인후원, 자체 수입에 의존하는 발레단의 운영 구조에서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작 방향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관점으로, 비언어적 공연예술의 규모적 한계를 고려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적 규모 설정과 공연 가치 인식 증폭이 가능한 제작 설계, 작품의 수명을 고려한 재공연 및 유통 구조의 사전 설계, 그리고 공연을 축제적 경험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공 지원과 민간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작품 내재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발레 제작은 비용 구조의 통제가 제한적인 장르라는 점에서, 단체와 공연의 가치 인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event)'으로 인식되도록 기획하는 관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케팅은 판매 촉진 수단을 넘어 개념과 해석, 담론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간을 움직이는 논리로서의 연대와 위상의 전이를 촉발하기 위해 단체의 차별적 예술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관객과의 관계를 일회적 소비가 아닌 지속적 공동체 관계로 전환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때 '진정한 팬'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신생 발레단이나 소규모 제작 주체가 기존의 대규모 관객 의존 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활동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언어적 시공간 예술로서의 발레가 원본성과 현장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아우라 개념이 여전히 유효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공연장 규모의 제한이라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아우라를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현장 경험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공연은 비일상적 사건의 체험으로, 관객을 잠재적 참여자로, 무대를 일시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장소로 전환하는 축제적 관점이 발레 제작의 미학적 그리고 기획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때 공연의 성공은 '잘 만든 작품'이라는 완성도 기준에 더해 관객의 기억 속에서 '축제가 된 사건'으로 각인되고 공동체적으로 전파되는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발레 제작은 축제가 작동할 조건을 설계하는 행위로 확장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관점으로 재정 다각화에 대응하는 제작 구조의 사전 설계, 선도 영역의 확보와 예술적 정체성 수립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관객 형성, 그리고 장기적 확장을 위한 축제적 요소의 선택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레 제작을 성장의 논리에서 지속의 논리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궁중에서 출발한 발레라는 비언어적 총체예술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왔으며, 본 연구가 발레 제작의 다음 전환을 모색하는 기초적 논의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증분석과 구체적 사례연구는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는 특정한 축제적 발레의 유형이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발레 제작을 축제의 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분석의 좌표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이 실제 발레 제작과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발레 공연 경험에서 축제의 미학적 조건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관객 경험 중심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레 공연에서 축제적 경험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기보다는 선택적이고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비언어적 예술 경험의 작동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레 제작에서 반복성과 지속성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사례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특정 발레단이나 제작 주체를 대상으로 공연의 반복, 관객과의 관계 유지, 단체 정체성의 축적 과정 속에서 축제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종적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레 제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 처방이나 형식적 대안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비언어적 신체예술이 작동하는 조건 자체를 성찰하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선영(2024). 국내 발레 분야 창작지원 정책환경 및 지원실태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41(1), 1-18.
- 김세훈(2015).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 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29(3), 35-59.
- 김선영(2017). *공연예술산업의 유통기반 AHP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일보(2023년 6월 27일). '최초' '최연소' 타이틀 휩쓸며... 세계 발레단 간판된 K-무용수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701032112310002>
- 문화체육관광부(2020). *예술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개선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경제(2025년 11월 25일). 정부 "수도권에 4만~5만석 공연장 추진"...*송충리, '서울 아레나' 현장 살펴*. <https://v.daum.net/v/Wuti2liPyn>
-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관객 개발과 가치 확산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 오병남(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희(2019). 공연분야 공공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문화정책논총*, 33(1), 155-185.
- 임수진, 홍애령(2024). 한국 발레 공연사업의 기획, 창작·제작 및 유통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41(1), 19-35.
- 정옥희(2022). 생애주기로 본 발레 안무가 육성 패러다임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무용학회논문집*, 80(2), 199-22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예술 가치 측정과 정책 활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공연예술 정책의 가치 지향 전환 방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Baumol, W. J., & Bowen, W. G.(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Twentieth Century Fund.
- Baym, N. K.(2018). *Playing to the Crowd: Musicians, Audiences, and the Intimate Work of Connection*. NYU Press.
- Benjamin, W.(2008).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eproduction, and Other Writings on Media* (M. W. Jennings, B. Doherty, & T. Y. Levin, Ed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Fischer-Lichte, E.(2008).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Routledge.
- Foster, S. L.(1985). The Signifying Body: Reaction and Resistance in Postmodern Dance. *Theater Journal*, 37(1), 45-64.

- Foster, S. L.(2011). *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Routledge.
- Godin, S.(2003). *Purple Cow: Transform Your Business by Being Remarkable*. Portfolio.
- Godin, S.(2008). *Tribes: We Need You to Lead Us*. Portfolio.
- Kelly, K.(2008). *1000 True Fans*. Wired Magazine. <https://kk.org/thetechnium/1000-true-fans/>
- Kotler, P. & Scheff, J.(1997). *Standing Room Only: Strategies for Marketing the Performing Ar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enger, P.-M.(2014). *The Economics of Creativity: Art and Achievement under Uncertainty*. Harvard University Press.
- Phelan, P.(1993).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Routledge.
- Pine, B. J. & Gilmore, J. H.(1999).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Reason, M. & Reynolds, D.(2010). Kinesthesia, Empathy, and Related Pleasures: An Inquiry into Audience Experience of Watching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42(2), 49-75.
- Reason, M. & Reynolds, D.(2014). Dance in the Streaming Age. In M. Borelli(Ed.)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the Popular Screen*, 325-339. Oxford University Press.
- Ries, A. & Trout, J.(1994). *The 22 Immutable Laws of Marketing*. Harper Business.
- Schechner, R.(2013).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3rd ed.)*. Routledge.
- Throsby, D.(2010). *The Economics of Cultur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wse, R.(2010). *A Textbook of Cultur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V.(1982).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s.

ABSTRACT

A Study on Structural and Aesthetic Perspectives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Ballet Production[†]

Jaehong Park*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begins from the recognition that ballet production has developed within a structural reality highly dependent on national funding and public support, and that prior to policy intervention,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planning logic of ballet production itself require reconsid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conceptual and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structural challenges facing ballet production and explores perspectives on production design and aesthetic direction that may enhance its sustainability. Drawing on the theory of the economic dilemma of the performing arts, this study discusse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ballet production in improving productivity and expanding revenue owing to its labor-intensive nature.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optimal scale for efficient operation, designing production strategies that amplify perceived value, and pre-planning revival and distribution structures based on the lifespan of works, while embedding discursive elements within productions to justify public support and private patronage. The study further argues that sustainability in ballet produc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through a logic of growth but through a logic of continuity, emphasizing relationship-building and community-based support rather than large-scale audience expansion. In this context, the concepts of performance as an event and “true fans” are employed to explore realistic sustainability strategies for small-scale production entities. Finally, this study reexamines the concept of aura inherent in ballet as a non-verbal, spatiotemporal art form and proposes an aesthetic direction that reconceptualizes performance as a Fest-oriented experiential condition rather than a fixed operational format, in a production environment where technological reproduction is difficult to operationalize effectively. Even when narrative structures are retained, designing performances as extraordinary events and recognizing audiences as potential participants through simultaneously shared sensory and affective experiences rather than passive consumers, are discussed as alternative approaches capable of enhancing both perceived value and sustainability in ballet production. As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exploratory stud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insights for reconfiguring production concepts and planning perspectives toward sustainable ballet production.

Key words : ballet performance production, economic dilemma of the performing arts, sustainability of ballet production, ballet as the Fest-oriented production

논문투고일: 2025.12.08

논문심사일: 2026.01.07

심사완료일: 2026.01.22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rts, Hansung University (jhpark@hansung.ac.kr)